

홍콩 ELS 손실 “기본 배상 20~40%… 최대 100%까지”

금감원 분쟁조정 기준안 발표…판매사·투자자 요인 등 고려 차등 배상 “DLF 보다 판매사 책임 더 인정 어려워…배상비율 높아지지 않을 듯”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예상 투자손실이 6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금감원)이 판매금융사(판매사)가 투자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기준안을 내놨다.

금감원은 11일 오전 10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홍콩 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 기준안’(기준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0~100%까지 배상해야 한다. 이는 판매사가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해야 했던

과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대비 배상비율이 확대됐지만, 투자자별 특성에 따른 세밀한 배상비율 설계로 인해 평균 배상비율은 DLF 사태 당시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홍콩 H지수 ELS투자 손실 배상사례 중 대부분이 배상비율 20~60% 범위내에 분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판매사와 투자자 중 일방적인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배상비율은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DLF 사태 당시 대비 상품 특성 및 소

비자들의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할 때,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DLF 사태 당시보다 전반적인 배상비율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배상비율은 판매사 요인(23~50%)과 투자자 요인(±45%p), 기타 조정요인(±10%p)을 고려해 정해지게 된다.

배상비율은 판매사들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등 판매원칙 위반 및 불안전판매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가 적용되며, 불안전판매가 이뤄진 경우 은행과 증권사가 기본배상비율에 각각 10%p, 5%p를 가중하게 된다.

투자자별로는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자, ELS 최초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 45%p를 가산하고,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자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에 따라 배상비

율에서 최대 45%p까지 차감한다.

금감원은 지난 1월 8일부터 두 달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 결과 판매정책·고객보호 관리실태 부실 등 판매과정에서 불안전 판매가 확인됐고, 기준안에 이를 반영하게 됐다.

금감원은 또 판매사가 홍콩 H 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영업 목표를 상향하는 등 무리한 실적경쟁을 조장하며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던 점과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위험상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임의조정하는 등 판매시스템 및 개별 판매과정 전반에서 불안전판매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확인된 위법적인 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당 판매사의 고객 피해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참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 이번 기준안에 따라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분쟁조정 기준안은 부당하게 투자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본인의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기준안에 따라 원활한 배상이 이뤄져, 판매사와 투자자 간 법적 다툼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연합뉴스

NH농협은행 전남본부, 고향사랑기부제 독려 캠페인



지난 8일 NH농협은행 전남본부 정재현 본부장 등 임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 독려 캠페인을 진행한 후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전남농협 제공>

NH농협은행 전남본부(본부장 정재현)는 지난 8일 나주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독려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차를 맞아,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제도 활성화를 위

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정재현 본부장과 전남지역 사무소장 등 40여명은 지역 활성화와 농업농촌의 발전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각자의 고향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정재현 본부장은 “전남 농촌의 발전과 지역 소멸이라는 큰 위기 극복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는 큰 관심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범농협 임직원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봄 내음 가득 봄동 맛보세요” 11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본점 지하 1층 채소매장에서 제철을 맞은 다양한 봄나물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점은 봄동과 미나리, 두릅, 달래 등 봄나물들을 판매하고 있다. 봄동 100g 당 480원, 청도미나리 6800원(1봉), 두릅 6800원(1봉)에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상의 ‘미래내일 일경험 광주권 지원센터’ 선정

15~34세 미취업 청년 취업 지원

광주상공회의소는 11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권역별 지원센터’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광주상의는 예산 3억원을 확보해 이달 중순부터 미래내일 일경험 광주권 지원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미래내일 일경험사업은 15~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해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미래내일 일경험 광주권 지원센터는 광주와 전남·북, 제주지역의 일경험 사업을 홍보하고 운영

기관·참여기업 발굴 및 설계 컨설팅을 진행한다.

센터는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 사업장 내에서 현장 직무 숙련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센터는 또 일자리 지원정책 합동 사업설명회, 기업과 대학 대상 순회 사업홍보 간담회, 공모전, 성과홍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사업을 확산할 계획이다.

광주권 지원센터는 중견·강소기업 60곳, 운영기관 15곳을 발굴해 4000명의 지역청년 참가를 목표로 통한 인재유출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상의 최종판 상근부회장은 “주관기관인 고용노동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내실있는

사업으로 미취업 우수인재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신규 일자리창출 및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코스피	2659.84 (-20.51)
코스닥	875.93 (+2.75)
금리(국고채 3년)	3.275 (+0.004)
환율(USD)	1310.30 (-9.50)

“미성년 자녀계좌 개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광주은행, 계좌 개설·조회 서비스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아이와(Wa)’ 계좌개설과 계좌조회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서비스는 광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도 미성년자 자녀의 계좌를 개설, 조회할 수 있다.

두 서비스는 기존 자녀의 계좌 개설과 조회를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기본증명서 등 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에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비스 가입 대상은 만 17세 이상, 광주은행 전

자금융 서비스에 가입된 부모 중 비대면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모든 고객이 해당된다.

두 서비스를 통해 자녀의 금융자산 관리가 편리해진다는 게 광주은행 설명이다.

박대하 광주은행 디지털기획부장은 “자녀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서류 준비 및 영업점 방문 등 복잡한 과정 대신 ‘광주 와(Wa)뱅크’ 앱 하나로 해결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출시했다”며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편의성 향상을 우선적으로 여기는 디지털금융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는 등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힘 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